

5 심팔학사도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당대 궁중풍속

차(茶)를 지극히 사랑한 한 중국의 황제가 있었다. 그는 황실 전용의 차발을 소유했으며 자신이 직접 <대관다론(大觀茶論)>이라는 저명한 다서(茶書)를 썼다. 뿐만 아니라 시·서·화에 뛰어났던 그는 차 그림을 몸소 그려 당시의 다법(茶法)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 전대미문의 통치자는 바로 북송(北宋, 960~1127)대의 마지막 황제, 휘종(徽宗, 1082~1135)이다.

그의 그림을 후대에 모사한 '심팔학사도'는 가로 폭이 5.5미터에 이르는 긴 두루마리 그림으로 내용은 당대(唐代)의 고사에서 유래했다. 당대중은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홍문관(弘文館)을 두었는데 그림은 그곳에서 활동한 18명의 학자들의 문화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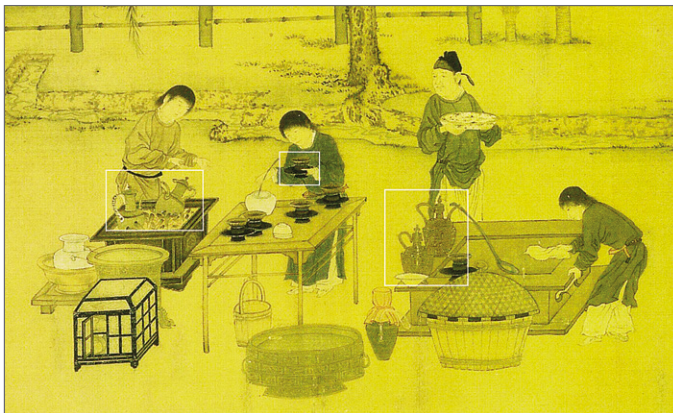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소재는 이후 송대의 문치주의 이념과 부합돼 꾸준히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림에는 궁중의 풍속장면이 파노라마형식으로 자세하게 표현되었다. 그 중에도 많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연회를 위해 차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화면 안에는 총 네 명의 인물이 묘사돼 있는데 우측에 관모를 쓰고 서있는 인물이 나머지 시동들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며 연회에 올릴 차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 주변으로는 탁자와 풍로, 찻잔을 보관하는 도랍(都籃), 청동그릇을 비롯해 다양한 다구들이 표현돼 있다. 현존하는 당시의 유물들을 회화 속의 다구들과 비교하면 그림 안에 북송대의 차 문화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구현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의 왼편에는 큰 풍로와 2개의 청동 병이 있다. 물이 다 끓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은제 병으로 옮겨 담겨 있는데, 휘종이 저술한 <대관다론(大觀茶論)>에 '병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좋다(瓶宜金銀)'라고 한 대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화면 중앙의 시동은 향아리에 있는 말차를 다란 안에 담고 있다. 또한 <대관다론>에는 '잔의 빛깔은 검푸른 것을 귀하게 여긴다(盞色貴青黑)'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차의 고운 빛깔을 밝게 드러내 주기 때문(取其煥發茶采色也)'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림 속의 다란은 북건설의 건주요(建州窯)에서 구워낸 토호문다란(虎毫文茶碗)으로 황실에서 사용하던 완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격물로 파워낸 흰색의 차 거품이 검은 잔에 담기면 그 색이 더욱 환하게 빛났을 것이다.

동자는 다완과 은제 병을 쟁겨 연회장소로 가져

음을 준비하게 될 텐데, 아마도 병에 담긴 물을 다 완에 조심스럽게 따르면서 동시에 다선으로 보기 좋은 차 거품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때 병의 가늘고 긴 주둥이는 밀도 있는 물줄기를 만들어 격분을 용이하게 했다. 이는 몽툭한 형태의 당나라 속우와 비교되는 송대 탕병만의 특징이다.

당대가 병차(餅茶)의 시대였다면 송대에는 단차(團茶)가 유행했다. 이들은 모두 말차의 일종으로 가루 내어 마시지만, 송대는 차 거품을 만드는 격별법으로 인해 다완과 탕병이 이에 알맞게 발전한 것이



송 휘종, '심팔학사도' 부분, 복숭, 비단 위에 채색, 28.2x550.2cm, 대북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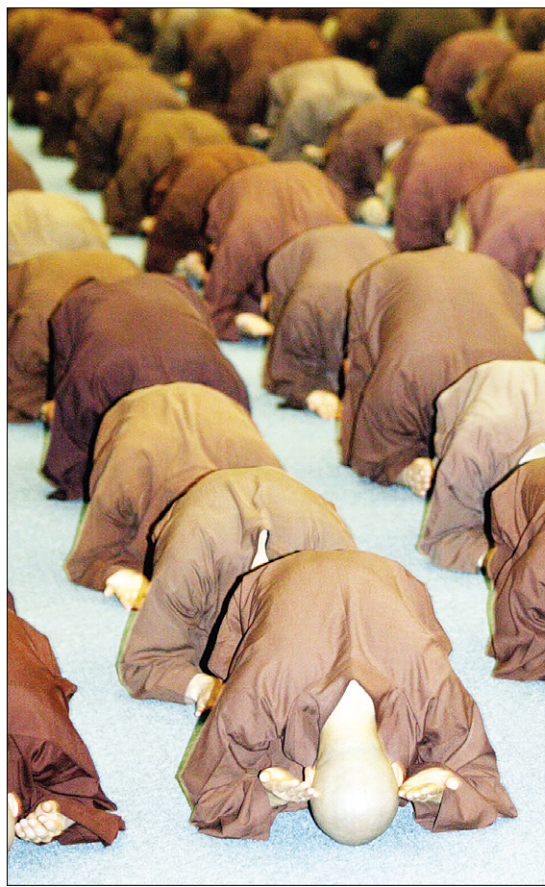
다. 뿐만 아니라 황실에 의해 관리됐던 송대의 단차는 차 만드는 공정이 당대에 비해 더욱 세분화됐으며, 탕법에 있어서도 발전을 거듭했으니 가히 송대의 단차는 말차기술의 정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또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송대 문사들에 의해 향유됨으로써 차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휘종의 그림 '심팔학사도'는 당나라의 아취 있는 문화를 그려 보편적인 지향점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이와 함께 송대의 다법을 그려 넣어 이들의 존재를 당시의 시대성 안에서 생생하게 부활시켰다. 즉 차를 준비하는 이 장면은 그림 안에서 당(唐)이라는 과거와 송(宋)이라는 현재를 연결시키고 서로 소통하게 만든 매개가 된 것이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이야기

2 행자복(行者服)



출가자는 누구나 행자 시절을 거친다. 다시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는 행자복도 이 때 입게 된다. 갓 난아가기 배내옷을 입듯 불가(佛家)의 이름을 받은 행자는 처음으로 행자복을 입는다. 행자는 계(戒)를 받고나면 동방에 행진이 전부인 행자복을 더 이상 입지 않는다.

오늘 행자교육원에 입교한 행자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있다. 지금 행자복을 입고 있는 행자도 배내옷을 입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기억할 수 없는 시절이다. 그 옛날 행자가 벗어놓은 배내옷엔 기억할 수 없는 시절이 남겨졌고, 이제 그 아기가 벗어놓은 행자복엔 있어서는 안 되는 시절이 남아서 다음 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시가 있는 도량

가을무덤

비가 지나간 발자국을 찾느라고 길바닥 물벼락은 우왕좌왕이다. 젖은 가로수 잎이 물방울을 거칠게 지상으로 연방 툭기고 있다. 음표 같다고 나뭇잎이 높고 낮은 악보를 그려낸다. 입속으로 증얼거린다.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또한 가지 끝에 증얼거리는 악보다. 지난 가을의 증얼거림은 숙연했다. 물끄러미 가지 끝에 눈을 주었다. 바라보았다. 우러러 본다.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사이 그 보다 먼저 송고하다는 심각한 말이 떠오르는 사이 가을이 몽글몽글 지고 있었다.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물 먹은 듯 나뭇잎을 전멸하는 가지 끝에서 비 오는 소리가 은근한 줄을 뿜었다. 가을무덤으로 가는 길이였다.

-유병근, <현대시학> 9월호에서

옛 관화의 세계

배휴가 시를 지어 바치다 배휴증시(裴休贈詩)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석회운 스님이 백장 선사(百丈禪師)에게 법을 이어받은 후 황벽산에 주석하고 계실 때 재상인 배휴공이 스님을 흠모해 황벽산으로 스님을 찾아와 친견하고 시를 바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회운 스님(希運~850)의 시호는 단제(斷際)로, 푸젠성(福建省) 출생이며, 어려서 홍주(洪州) 황벽산에 들어가 승려가 됐는데, 어릴 때부터 지기(志氣)가 왕성해 출가한 후, 백장 선사의 지도를 받고 깨달음을 성취했다. 종릉(鍾陵)의 용흥사(龍興寺)의 개조(開祖)인 인제의현(隱玄)이 있고, 그 법어(法語)는 배휴(裴休)가 집대성해 <황벽산단제선사 전심법요(傳心法要)> (1권)를 남겼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운 스님이 천태산으로 가다가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 같이 가게 됐다. 이들은 서로 나란히 걸어가는데 길이 끊어지고 큰 개울이 가로막혀 길을 갈 수 없게 되자 같이 가던 스님이 강을 건너

가자고 재촉했다. 회운 스님은 건너가고 싶으면 혼자 건너가라고 말했다. 그 스님은 평지를 가는 듯 조금도 물에 젖는 것이 없이 물을 건너 회운 스님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에 회운 스님이 말했다. '스스로 깨달은 척하는 놈! 내가 일찌감치 알았다면 반드시 너의 정강이를 부러뜨렸을 것이다.' 그러자 그 스님은 찬탄했다. '진실로 큰 법기르다. 나는 미치지 못한다.' 이 본문의 내용을 중국학자 오경웅은 선학의 황금시대에서 이렇게 새겼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심체를 얻으려면 사소한 마음의 집착을 없애야 하며, 혹은 적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진정한 지혜의 샘솟는 원천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력을 흘뜨려 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벽의 일심(一心)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無心)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근본 마음-심체(心體:fundamental Mind)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무심을 통해서다." 이러한 무심의 세계를 가기 위해 수행 정진했던 황벽 선사의 시 "뺨을 깎는 주위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들 어찌 매화가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라는 박비향(僕鼻香)이 생각나는 시간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배휴증시(裴休贈詩)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격(半幅) 27.2×18.0cm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미국불교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와 그 현장!

전 세계 모든 불교가 공존하는 미국불교의 놀랍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

- 미국에서 불교는 어떻게 전파되고 진행되었는가?
- 미국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애쓴 주요 포교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였나?
- 미국인으로 불제자가 되어 활약한 사람들은?
- 미국 내의 일본, 티베트, 중국, 한국, 베트남 불교도의 활동 및 계보는?
- 미국불교의 특색은 무엇인가?
- 미국인에게 불교는 무엇이며, 미국불교의 미래는?
- 유럽인들과 불교는 어떻게 만났는가?
- 미국불교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교훈은?

릭 필즈저, 한창호 역 / 신국판양장/672쪽/30,000원



이야기 미국 불교사

한국의 불교문화가 한 손에!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불교문화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

한국불교문화사전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700여 개의 표제어와 150여 컷의 사진으로 꾸민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